

“전북 토종작물 보존 지원근거 마련을”

이학수·이현숙 의원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김은진 교수 “농민의 자가 채종의 길 열어주는 것이 첫걸음”

전라북도 토종작물의 보존 가치와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농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위원장(정읍2)과 이현숙 의원(민중연합당, 비례대표)은 20일 오전 10시 전북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전라북도 토종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원광대 김은진 교수의 ‘토종종자조례의 의의와 쟁점 그리고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와 전희식 반GMO 전북행동 위원, 오은미 전연농 전북도연합 부회장, 신지연 부여군 토종종자센터 운영팀장, 박미정 전연농 총연합 식량주권위원회 위원장, 오형식 전북도 친환경농업과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은진 교수는 “종자주권을 확보하는 게 곧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일이며 토종종자조례를 통해 농민의 자가 채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첫걸음이다”며 농민보호에 초점을 맞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토종 종자 조례에 대한 쟁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김 교수는 “토종종자의 가치는 생물다양성과 농업생산의 보장에 있다. 그러나 농업생산 보장에서 WTO나 FTA 등에 의해 특장산업에 대한 보호 이유로 제소될 가능성이 많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걸 꺼리고 있다”면서 “생물다양성 보호는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농민들이 최소한 기간동안 자가 채종했다는 기록과 증거를 고시 등록된 토종종자가 다른 지적재산권에 의해 독점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토종종자 가치가 농업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생산비 이하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위원장과 이현숙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전북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전라북도 토종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로 수입이 떨어진 경우만 보전하고 있다. 하지만 재배 그 자체만으로 면적단위 우선적인 지원을 비롯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도 소득보전지불금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토종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도 촉구했다.

김 교수는 “토종종자조례에는 5년간 지원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민에 대한 지원이지 토종종자 자체를 보존하기 위한 지원이 아니다”며 “토종종자 자체를 보존하기 위한 지원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베이스화해 보존하는 것이다. 2010년 과산군에서 발간한 ‘작물 토종자원 도감’은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현숙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충남과 경남에서 토종작물 보존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했고, 전라북도의 삼라농정 정신에 맞는 실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학수 위원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종자은행이 운영되고 있으며, 늦게나마 전라북도 토종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토론회의 장을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며 “농도 전북의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해 도내 토종작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현숙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광명 기자

국민의당 여성위 전북워크숍 23일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 전북워크숍이 오는 23일 오후4시 전주전통문화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주최하고, 국민의당 전북도당 여성위원회가 주관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김광수 전북도당 위원장, 전정희·이옥 전국여성위원장을 비롯해 당원 및 내빈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오후 4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박지원 원내대표의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의당의 역할과 과제’, 김은미 전북대 정치경제학과 교수의 ‘공정세상 : 여성의 정치참여’ 주제 특강이 마련된다.

아울러 ‘여성당원들에게 듣는다’는 질의응답과 공연, 단체 카드섹션 등 퍼포먼스가 연출된다.

홍성임 전북도당 여성위원장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평등한 대한민국, 모두가 담당한 사회’라는 목표 아래 당당히 일하고, 맞서고, 누리는 여성을 위한 정책공약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여성의 DNA가 이끄는 담대한 변화로 정치혁신을 주도했다”며 “이번 전국여성위원회 전북워크숍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개혁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민과 함께, 도민 속에서 선명, 수권정당으로써 국민의당이 정권교체를 이룩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광명 기자

더민주도당 “지자체 지진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하 전북도당)은 20일 “도내 지자체의 지진 대책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경주지진 이후 지역언론에 보도된 도내 건축물들의 내진 설계율은 초라하기 그지 없는 수준임이 드러났다. 도내 민간건축물의 98%가 지진에 무방비 상태다”면서 “이번 경주지진을 계기로 지자체 차원의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우선, 공공시설물 내진률을 대폭 끌어올리고, 민간 건축물의 내진률도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지진 관측 및 경보시스템과 지진대피소 확충, 주민들의 각종 교육이 대대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 민간건축물의 98%가 지진에 무방비 상태이며 법적으로 의무화된 내진 대상 민간건축물들도 60% 이상이 내진 설계가 안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광명 기자

더민주 “미르·K스포츠 특혜에 靑수석 연루 의혹”

“새누리, 국감 증인채택 응해야”… 한겨레 “박 대통령 비선 실제 최순실씨 개입 정황”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박근혜 정권 실제 개입 의혹을 사고 있는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와 관련, 청와대 수석의 연루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어 공세를 폈다.

윤호중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설립허가, 기부금 모금 뒤에는 청와대 모 수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일고 있다. 2개 재단은 닭은꿍이다. 신청 하루 만에 허가가 났다. 신청 서류를 보면 장소날짜만 다를 뿐 모든 기록이 같다. 유령총회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설립 몇 개월 만에 각각 486억, 380억 등 약 900억원에 이르는 기부금이 조성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5공화국 시절 일해재단이 어떻게 국민적 의혹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는지를 잘 알고 있다”며 “더민주주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도 “정부의 각종 특혜와 위법 정황이 드러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를 적법하게 조치하고 모금된 900억 가량의 자금이 불법 비자금에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국감을 통해 모든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그러나 국회 교문위 국감증인채택과 관련해 더민주가 요구한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계자, 그리고 출연금을 낸 기업관계자 등 단 1명도 수용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순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새누리당은 이성적으로 증인채택과 국감감사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날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제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재단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K스포츠재단 이사장 자리에 자신이 단골로 드나들던 스포츠마사지센터 원장을 앉힌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시스

추미애 “태풍·지진 위험에 각자도생이 정부 지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태풍·지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연휴기간 국민은 태풍과 360여차례가 넘는 여진의 위협에 노출됐는데도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 각자도생, 그것이 정부의 유일한 지침이었다”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 역대 최고의 강도에도 이 정부는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도화된 복핵은 호시탐탐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는데 정부의 유일한 대책은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인 사드 배치라고 한다. 그 사드도 1년4개월 뒤에나 배치된다고 한다”며 “그 사이에 발생할 이 정부가 발생시키는 북한의 위협에 국민 생명이 방치됐다. 내일부터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전라북도 |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2-30 (9일간)